

보도시점

2026. 9. 6.(일) 11:00
2026. 9. 7.(월) 조간

배포 2026. 9. 4.(금) 16:00

농촌의 풍경에서 삼까지...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 수상작 선정

-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 수상작 50점 선정
- 9월 1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 수상작 50점을 최종 선정했고, 9월 10일(목)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20주년을 맞아 ‘스무 해의 시선, 새로운 발견’을 주제로 추진됐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촌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발굴해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1,577점(사진 1,496점, 영상 81점)이 출품됐다. 출품작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50점이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됐고, 본심사 점수 70%와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 점수 30%를 합산해 최종 수상 훈격이 결정됐다.

최종적으로 사진 부문에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입선작 37점 등 총 45점이, 영상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입선 3점 등 총 5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사진 부문에 출품된 「미루나무 사이길로」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푸른 농경지 사이로 길게 이어진 미루나무 길과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조화롭게 담아 농촌 경관의 아름다움과 농촌에서 누리는 일상의 여유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미루나무가 만들어 내는 선과 원근감, 푸른 들녘과 하늘의 색감이 돋보이고, 익숙한 농촌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주제 적합성·작품성·독창성 및 홍보 활용도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10일(목) 오후 3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사진·영상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 50점의 수상작에 2,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 작품은 앞으로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누리집(www.raise.go.kr/pcon)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수상작에는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농업인의 삶과 일상,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등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이 다양하게 담겼다”라며, “앞으로 수상작을 전시·교육·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농촌을 국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Life 사진·영상 및 숏폼 공모전 시상식 계획(안)
2. 주요 작품 심사평 및 수상작 리스트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김한승 (044-201-1555)

□ **추진개요**

- 일 시 : '26. 9. 10.(목), 15:30~16:20, 통합 행사
- 장 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 : (사진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
(솟품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 참 석 자 : 농식품부, 公社, 한국농촌계획학회, 우수작 수상자 등 약 50여명
- 주요내용 : 추진경과보고, 격려사, 수상자 시상, 기념촬영 등

□ **시상 분야 : 총 20점**

- (사진공모전) 총 10점(대상1, 최우수3, 우수6)
- (솟품공모전) 총 10점(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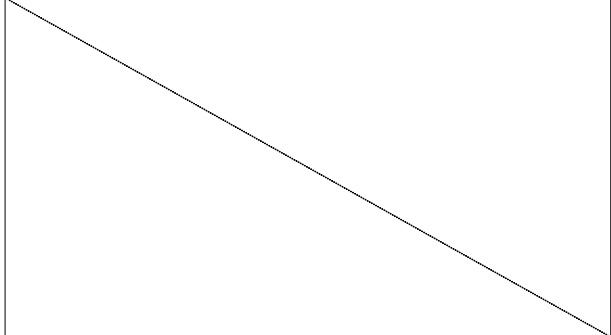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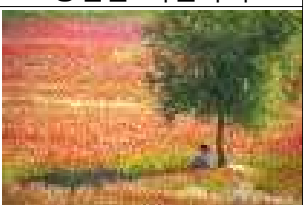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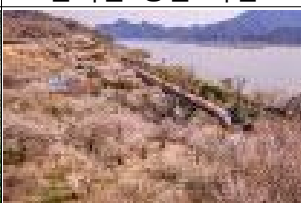
□ **주요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15:30~15:35	5'	○ 개회 선언	사회자
15:35~15:40	5'	○ 추진경과보고	농식품부
15:40~15:45	5'	○ 격려사	농식품부
15:45~15:55	10'	○ 사진공모전 시상(10점)	(사진) 대상: 장관상 1점, 최우수: 公社 사장상 2점, 우수: 公社 사장상 5점 (영상) 최우수: 公社 사장상 1점, 우수: 公社 사장상 1점
15:55~16:00	5'	○ 기념촬영	
16:00~16:10	10'	○ 솟품공모전 시상(10점)	대상: 장관상 1점, 최우수: 公社 사장상 2점, 우수 농촌계획학회장상 3점, 장려: 농촌계획학회장상 4점
16:10~16:15	5'	○ 사진촬영	
16:15~16:20	5'	○ 폐회	사회자

- (대상: 「미루나무 사이길로」) 푸른 농경지 사이로 길게 이어진 미루나무 길과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조화롭게 담아 농촌경관의 아름다움과 농촌에서 누리는 일상의 여유를 효과적으로 표현. 특히 미루나무가 만들어 내는 선과 원근감, 푸른 들녘과 하늘의 색감이 돋보이고, 익숙한 농촌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주제 적합성·작품성·독창성 및 홍보 활용도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음
- (사진 부문 최우수상: 「아이들과 벽화」) 농촌 들녘을 그린 대형 벽화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실제 농촌 경관과 벽화 속 농촌 풍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농촌을 아이들의 놀이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표현. 기존의 정적인 경관 중심에서 농촌의 삶·체험·일상까지 공모 대상을 확대한 올해 공모전 추진 방향을 잘 보여주고, 밝은 색감과 역동적인 구도로 대중적 친밀감과 홍보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음
- (사진 부문 최우수상: 「대지에 새긴 삶의 궤적」) 밭고랑이 만들어 낸 반복적인 선과 농작업 기계의 모습을 높은 시점에서 포착해 농업인의 노동과 농촌의 생산 현장을 인상적으로 형상화. 농경지를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농업인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삶의 공간으로 재해석했으며, 대지의 질감과 규칙적인 패턴을 활용한 독창적인 화면 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영상 부문 최우수: 「다양하고 새롭게 익어가는 농촌」)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뿐 아니라 농촌의 일상·문화·체험과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의 흐름 속에 다채롭게 담아, 농촌을 과거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이 자라나는 공간으로 표현. 올해 공모전이 지향한 ‘스무 해의 시선,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영상 콘텐츠로서의 전달력과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영상 부문 우수상: 「은행원에서 스마트팜 청년농부로, 새로운 발견」) 은행원에서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으로 삶의 진로를 바꾼 과정을 통해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선택과 성장을 진솔하게 담았음. 농촌이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전달한 점이 돋보임

□ 수상작 리스트

사진 부문	
대 상 (1)	 미루나무 사이길로
	최 우 수 상 (2)  아이들과 벽화  대지에 새긴 삶의 궤적
우 수 상 (5)	 구봉산과 황금들녘
	 새로운 빛, 새로운 농촌  할머니의 가을 추수
	 허수아비처럼~

				
	무꽃과 산방산			
입 선 (37)				
	안개속 모종작업	노을을 품은 둠벙	물안개 속 박제된 봄 의 데칼코마니	다문화 농민의 풍성한 3색 포도수확
				
	녹차밭의아침	해바라기 피는 마을	풍년을 기원하며	농부의 시간
				
	풍요를 잇는 행렬	활기찬 농촌 아침	꽃밭에서	빛과길이그린 농촌
				
	가뭄 극복	모두의 봄 축제	목장의 아침	벼 수확 풍경
				
	노을길을 건다	어머니의 일상	월동준비	행복한 부부
				
	모판을 옮기다	농한기의 마이산	봄빛을 달리는 열차	막걸리 한잔

			
겨울연가	가을을 머금은 녹차밭	가을들판	꽃감과 메주
			
노을을 품은 해바라기	아름다운 섬의 숲	황금들판	겨울 들녘을 물들이는 주향빛
			
대를 잇는 감빛 하루	집으로 가는길	땀의 가치, 흙의 소리	유채 길을 걷다
			
스마트 농업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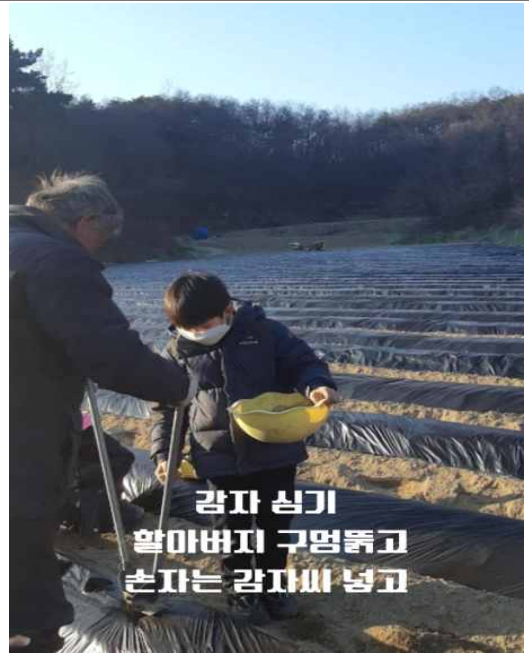
영상 부문

최 우 수 (1)		우 수 (1)	
	다양하고 새롭게 익어가는 농촌		은행원에서 스마트팜 청년농부로, 새로운 발견

입
선
(3)



우리가 몰랐던 농촌



할아버지의 사계절 농사 교실



맨땅에서 찾아낸 우리만의 정답